

성폭행 당한 여중생 부모 남학생 불러 칼로 찔러

서울 신정경찰서는 5일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중학생을 자기집으로 불러 흥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김아무개(37·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8단지)씨 부부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지난 4일 밤 11시50분께 자신의 딸(16·여중3)을 10대 선후배 7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심아무개(16·중3)군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내 딸을 왜 망쳐 놓았느냐"며 몽둥이로 때리고 머리, 옆구리 등을 칼로 찔러 중태에 빠뜨렸다.

김씨 부부는 심군을 병원으로 옮긴 뒤 심군의 아버지(47)와 어머니 유아무개(46)씨도 자기집으로 불러 "자식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며 다투다 유씨를 마구 때려 유씨도 병원에 입원했다.

노동·서울 동작구 사당4동 181-296)씨 집 창고에서 결혼을 앞둔 김씨의 둘째아들 두형(24·공장노동자)씨가 아파트를 마련하지 못한 것을 비판, 높이 2m의 서까래에 빨래줄로 목을 매 숨지자 이를 비판한 아버지 김씨도 2시간쯤 뒤 같은 장소에서 목을 매 숨졌다.

김씨의 딸 순생(29·서울 관악

구 봉천3동 산81)씨에 따르면 이날 친정에 와 쉬려고 동생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어보니 공장간에 줄 알았던 동생이 창고에서 목을 매 숨져 있었으며, 수의 등을 사러 시장에 갔다 와보니 술을 마시며 신세한탄을 하던 아버지가 동생이 죽은 장소에서 목을 매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는 것이다.

김씨 부부는 심군을 병원으로 옮긴 뒤 심군의 아버지(47)와 어머니 유아무개(46)씨도 자기집으로 불러 "자식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며 다투다 유씨를 마구 때려 유씨도 병원에 입원했다.

명인 20대과한에게 흥기로

【清州金鉉洙기자】5일오전 5시쯤 忠北清州市牛岩洞 洪모씨(52)집 건넌 방에서 자취하던 여고생宋모(18·D여상2년)·韓모(17·D여상2년)양을

자취女高生 刺殺

20代, 폭행하려다 반항하자

가슴과 어깨를 찔러宋양은 숨지고 韓양은 부상했다. 韓양에 따르면 4일저녁 서울에서 돌아와 자취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20대청년1명이 宋양을 폭행하려고 옷을 벗기는 순간 잠을 깨 반항하자 흥기를 꺼내 宋양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하고 韓양의 왼쪽어깨도 찔렀고 도망쳤다.

중 90.10.5